

11월 2주차

주간 매크로 투자회의

11.5배의 KOSPI, 또 변동성이 나올 것인가



주요 시장동향 및 차주 전망

시장동향 (10.28 ~ 11.1)

주식

미중 무역 협상 기대와 FOMC 금리 인하로 투자심리 상승. 코스피 40여일 만에 2,100선 회복. 3Q 기업 실적 예상치 대비 상회에도,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지속

금리

FOMC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금리는 하락 추세를 이어갔지만, 한국 경기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폭 반납

환율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세 진정 +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으로 환율 하락세 지속

유가

예상 이상의 美 원유재고 증가로 수요 부진 우려 확산. 그러나 美中 당국자간 통화에서 농업/금융/환율 협상에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낙폭 축소

지수밴드 및 향후 전망 (11.4 ~ 11.8)

주식

미중 무역분쟁 해소 기대감 상승에 유동성 확대. 방향성은 아직 불분명. 차주 주요 연준 위원 발언과 중국, 독일 등 글로벌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 움직임 전망

금리

한국 경기 기대감이 높아지기는 어려운 시점으로 추가적인 상승여력은 제한적. 미국 금리 인하 제한에도 한국 금리인하 기대감 존재

환율

뚜렷한 이슈가 나오기는 어려운 구간. 우려스럽던 미국 경제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한국 경기 기대도 부정적 흐름은 완화될 것

유가

美中 무역합의 가능성으로 유가의 하방 경직성 강화. 다만, 美 제조업 경기 부진 등 여전한 수요 부진 우려가 유가의 상단 제한할 것

구분	등락률(%)		종가(11.1)	차주 지수밴드
	주간(%WoW)	월간(%MoM)		
KOSPI	0.59	1.34	2100.20	2,070 ~ 2,160 pt
KOSDAQ	1.53	4.78	662.34	645 ~ 685 pt
국채3년	3.2 (bp)	16.0 (bp)	1.477	1.35 ~ 1.55 %
원/달러	-0.82	-2.97	1163.40	1,155 ~ 1,180 원
WTI	-0.81	4.42	56.20	\$ 53.00 ~ 58.00

주요 경제지표 발표 및 이벤트

Date	국가	지표	예상치	실제치	이전치
10/30	미국	3분기 연간화 GDP (QoQ, 예비치)	1.6%	1.9%	2.0%
		10월 FOMC 금리 결정	1.75%	1.75%	2.00%
10/31	유럽	3분기 GDP (QoQ, 예비치)	0.1%	0.2%	0.2%
		10월 CPI (YoY, 예비치)	0.7%	0.7%	0.8%
11/01	한국	10월 CPI (YoY)	-0.3%	0.0%	-0.4%
		10월 수출 (YoY)	-13.6%	-14.7%	-11.7%
	중국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	51.0	51.7	51.4
	미국	10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	85k	128k	180k
		10월 ISM 제조업지수	48.9	48.3	47.8
11/04	유럽	10월 마킷/BME 독일 제조업 PMI (확정치)	41.9	-/-	41.9
	미국	9월 내구재 주문 (확정치)	-1.1%	-/-	-1.1%
11/05	한국	10월 외환보유고	-/-	-/-	\$403.32b
	미국	10월 ISM 비제조업 지수	53.4	-/-	52.6
11/07	독일	9월 산업생산 WDA (YoY)	-4.3%	-/-	-4.0%
11/08	중국	10월 수출 (YoY)	-4.5%	-/-	-3.2%
		10월 수입 (YoY)	-8.0%	-/-	-8.5%
11/09	중국	10월 CPI (YoY)	3.3%	-/-	3.0%
		10월 PPI (YoY)	-1.5%	-/-	-1.2%

주요 이벤트

✓ 아세안+3 정상회의/동아시아 정상회의(11/4)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5일에 아세안 관련 정상회담 관련 일정 참석을 위해 개최지인 태국 방콕을 방문할 예정. 11월 4일 오전에는 아세안+3국(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 오후에는 동아시아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전해 정상간 대화는 늘 열려 있다는 입장과 어려운 현안이 극복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일본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한일 관계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

✓ MSCI 반기 리뷰(11/7)

현지시간으로 11월 7일에 MSCI의 반기 리뷰 발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종목/국가 비중 변경은 11월 26일 종가에 이루어져 11월 27일부터 인덱스에 반영 예정. MSCI 반기 리뷰에 대한 포인트는 2가지인데, ① 중국 A주의 비중 확대와 ② 한국 기업의 종목 변화가 될 것. 먼저 중국 A주의 반영 비중은 기존의 15%에서 20%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번에는 5월, 8월과 달리 중국 중형주도 포함될 예정. 자동적으로 한국의 비중은 감소할 예정이며, 이는 5월, 8월과 마찬가지로 수급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음. 두 번째 포인트는 MSCI Korea내에서의 비중 변화 가능성인데, 현재 케이엠더블유가 신규 편입되고, 신라전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 전반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좋지 못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올해 3번째 비중 변경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수급 측면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이슈가 되지는 못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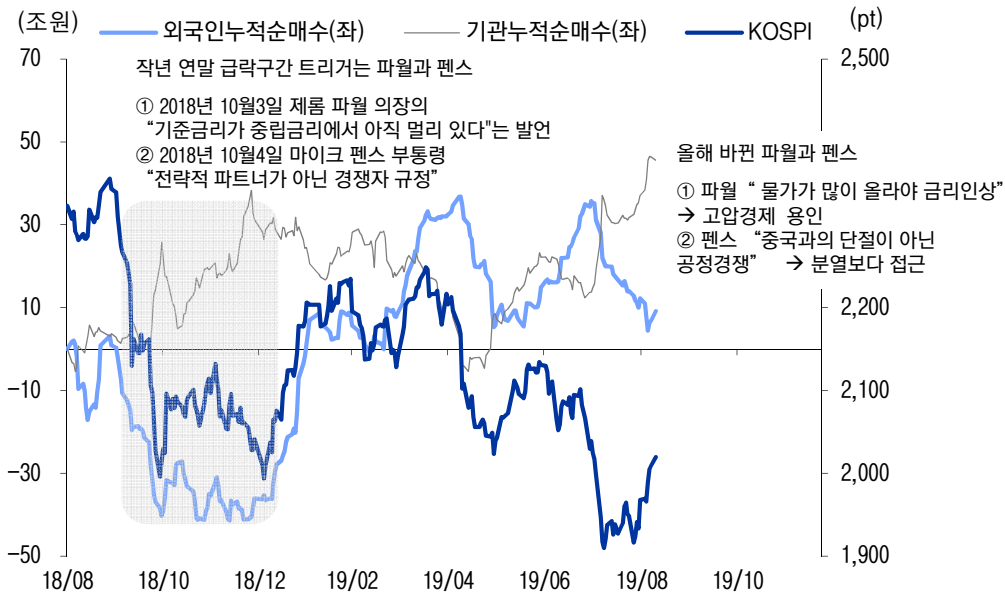


Strategist's Com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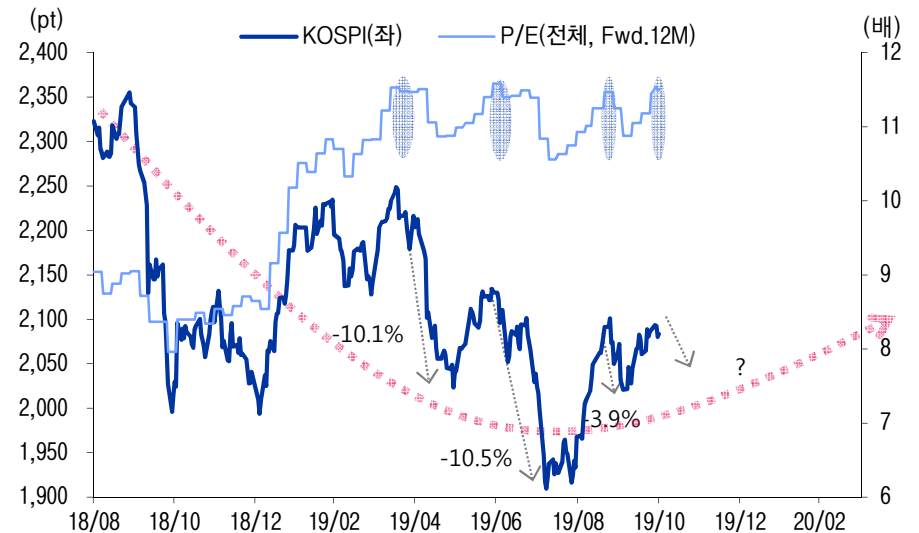
Chief Strategist 신중호

11.5배의 KOSPI, 또 변동성이 나올 것인가

- ✓ 지난 8월 저점(종가기준, 8/7) 이후 KOSPI 9.6%의 상승. 외국인 2.3조원 매도구간에서 기관의 3.3조원 순매수가 동력
- ✓ 시장 상승의 모멘텀은 실적턴어라운드(12M F 기준), 중미무역협상의 원만함, 연준의 금리인하 및 자산증대
- ✓ 다만, 올해 내내 PER 11.5배 수준에서 시장 변동성 확대의 경험. 이익턴어라운드 기대감은 높지만, 당장 실적시즌에서의 이익하향조정과 MSCI 수급 이슈까지 맞물리는 시점
- ✓ 2018~2019년 악화(경기, 이익, 무역갈등, 통화정책)에서 개선으로의 전환기. 변동성은 낮고 방향성은 Up-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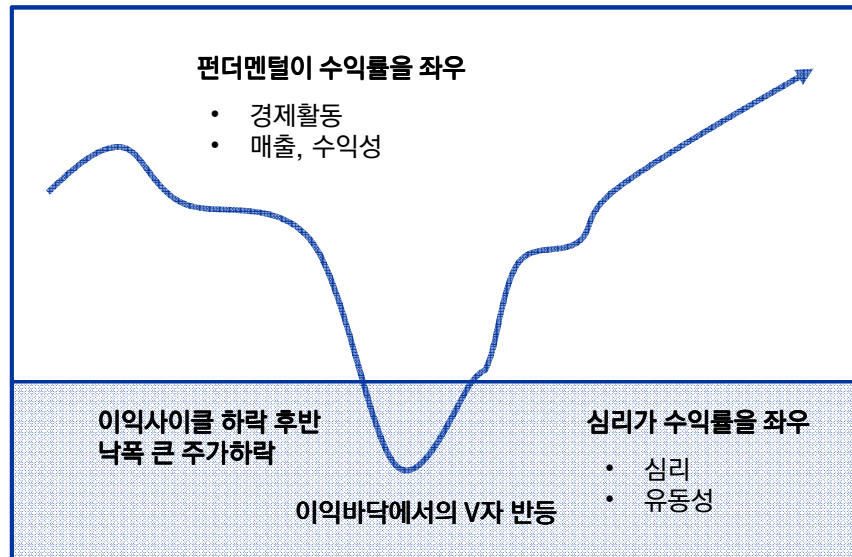


턴어라운드 국면에선 변동성 이전보다 축소 전망



자료: FnGuid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익 바닥 근처에서 변동성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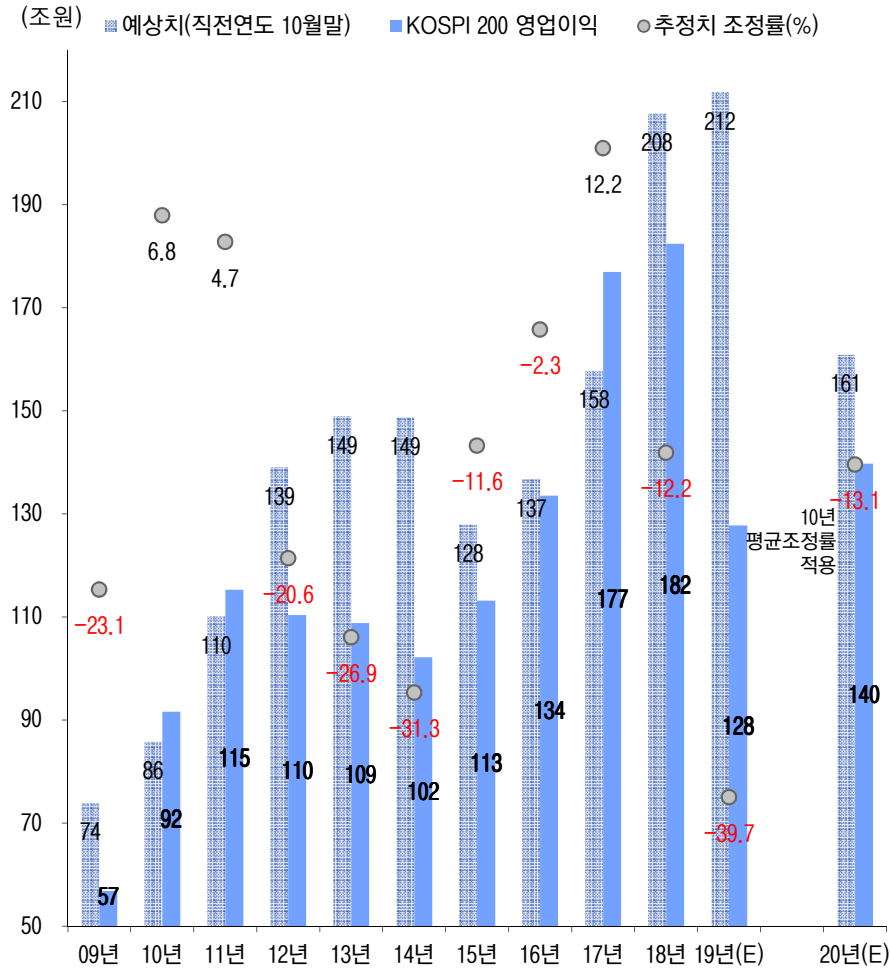
이익바닥에서의
V자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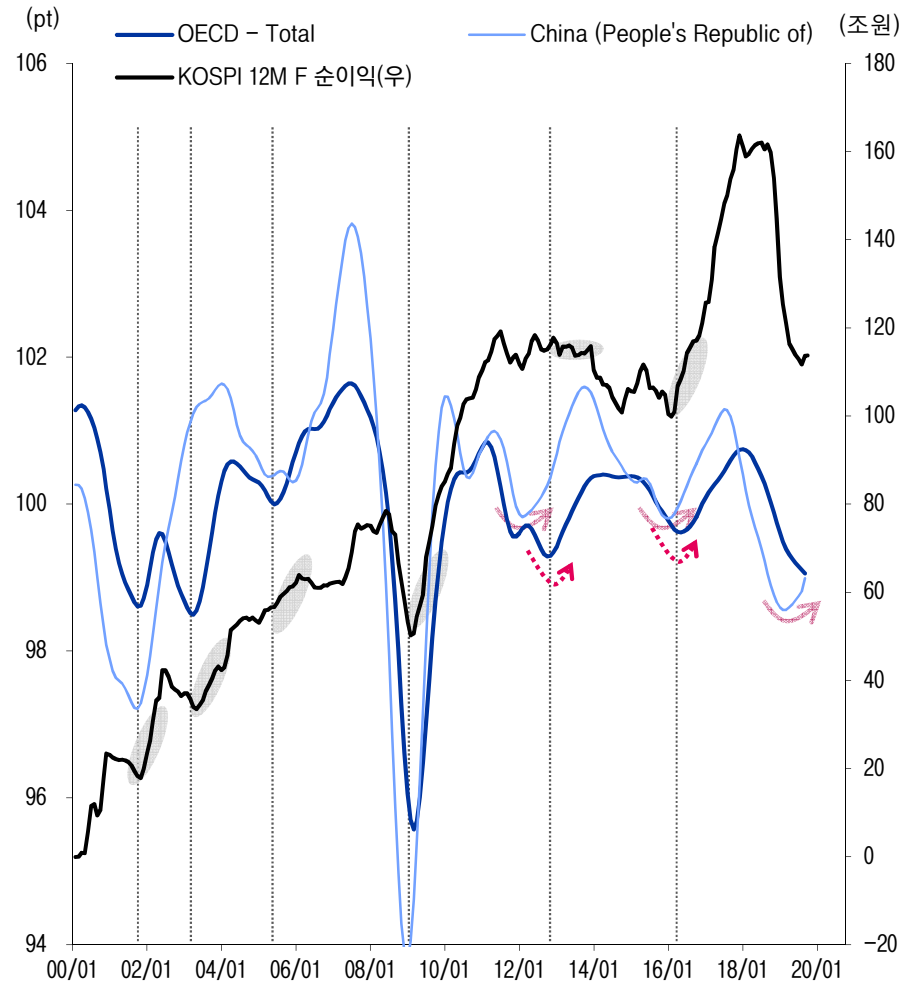
주: 좌상단 그림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캔피서, 에프엔미디어에서 발췌하였음
자료: FnGuid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턴어라운드 경험

눈높이 조정과 실제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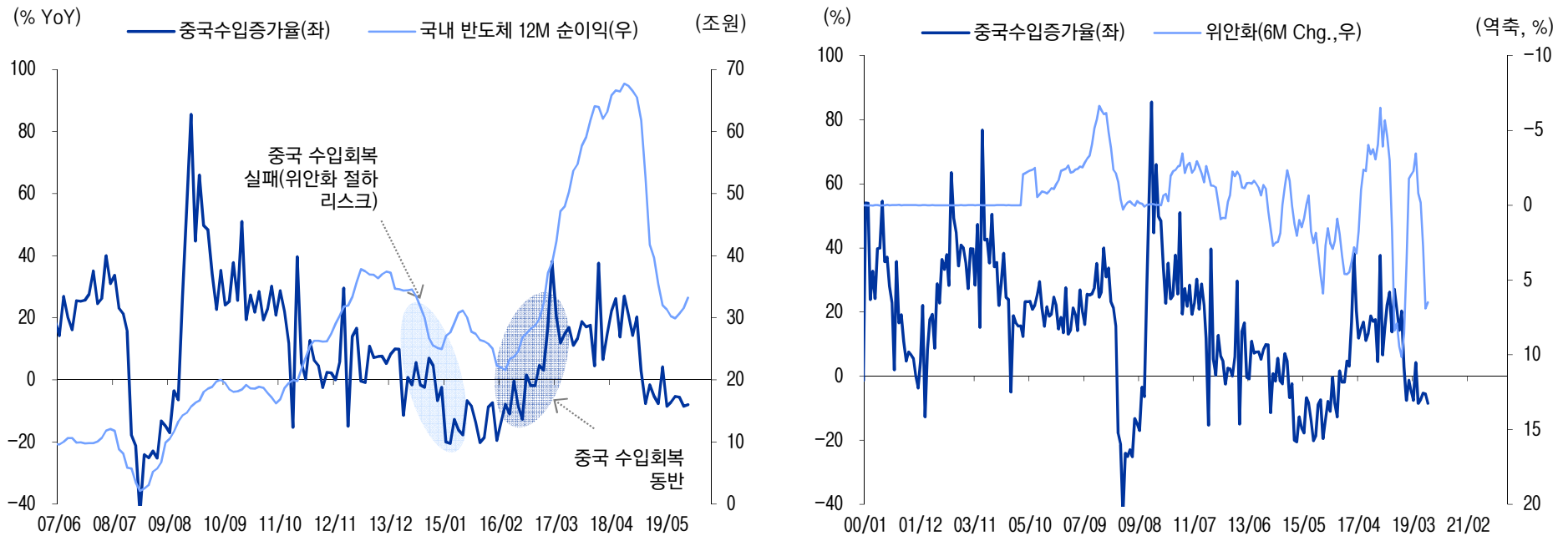
글로벌 경기 턀어라운드, KOSPI 이익하향조정은 제한적



자료: Bloomberg, OEC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위안화 강세여부가 한국반도체 이익 좌우

- ✓ 중국 수입증가율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 한국 수출과 실적의 Key인 반도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음
- ✓ 중국수입증가율은 전월 -8.5% 수준에서 -8%로 소폭 회복 전망(Bloomberg 컨센서스). 중국 M1 상승세와 기준율 인하의 하반기 시차효과, 당국의 추가정책(기준율 인하, 추가감세) 출현과 미중 무역협상 타결기대감으로 턴어라운드 기대는 유지될 수 있을 것
- ✓ 다만, 2015년 한국 반도체 이익기대감 회복에 위안화 절하가 찬물을 끼얹었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위안화의 안정적 절상 기조가 필요
- ✓ 결국 11월 미중 정상간의 긍정적 회담결과와 위안화 관련 Deal이 성사가 국내증시 턴어라운드 가능성의 key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conomist 최광혁

FOMC의 금리 인하 마무리 신호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기대감 상승 및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지속, 연준의 완화적인 태도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겹치며 경기 우려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연말 소비시즌이 다가오고 있어 소비를 통한 경기 확장 기대감이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

3/4분기 어닝 시즌이 중반을 지났고,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는 기업 시가총액의 72%에 달하는 기업이 이미 실적을 발표한 상태. 현재까지의 모습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비중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금액 측면에서는 예상치보다 높은 3/4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한 상황. 2019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여전히 하향 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3/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은 모습 지속



Quant 염동찬



Quant 정다운

최근 미국 증시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때 가치주의 상대 강세 출현
미국 가치주 지수들은 8월 말 ~ 9월 중순까지 급반등 → 10월 초까지 상승 폭 일부 반납
→ 이후 현재까지,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상대 강세 지속 중
2018년 12월 급등했던 가치주의 성장주 대비 할인율(2019년 평균 53%)은 현재 49.6%까지 축소
1차적으로는 2018년 평균 할인율 43%까지 축소 가능성(주가 수익률로 환산 시 13% 수준)
→ Value의 상대 강세에 베팅하는, RWVG(Russell 1000 Value over Growth) ETF에 관심 필요

2019 LME Week 기대, 희망 보다 팩트에 더 집중. 경기 회복 국면 진입이라 말하지만 회복의 장기화를 말하는 이들은 제한적. 오히려 美 경기 침체 등을 근거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 지배 중. 중국의 정책 여력 역시 남은 것은 통화정책 뿐이란 점이 핵심. 美中 무역합의 역시 국내에서 바라보는 것과 달리, 갈등 이전 수준의 위안화 회귀와 부과된 관세 전면 철폐 없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여는 낮을 것이라 것이 중론. 2020년 시장 컨센서스는 산업금속 보다는 여전히 귀금속



China/Commodity 최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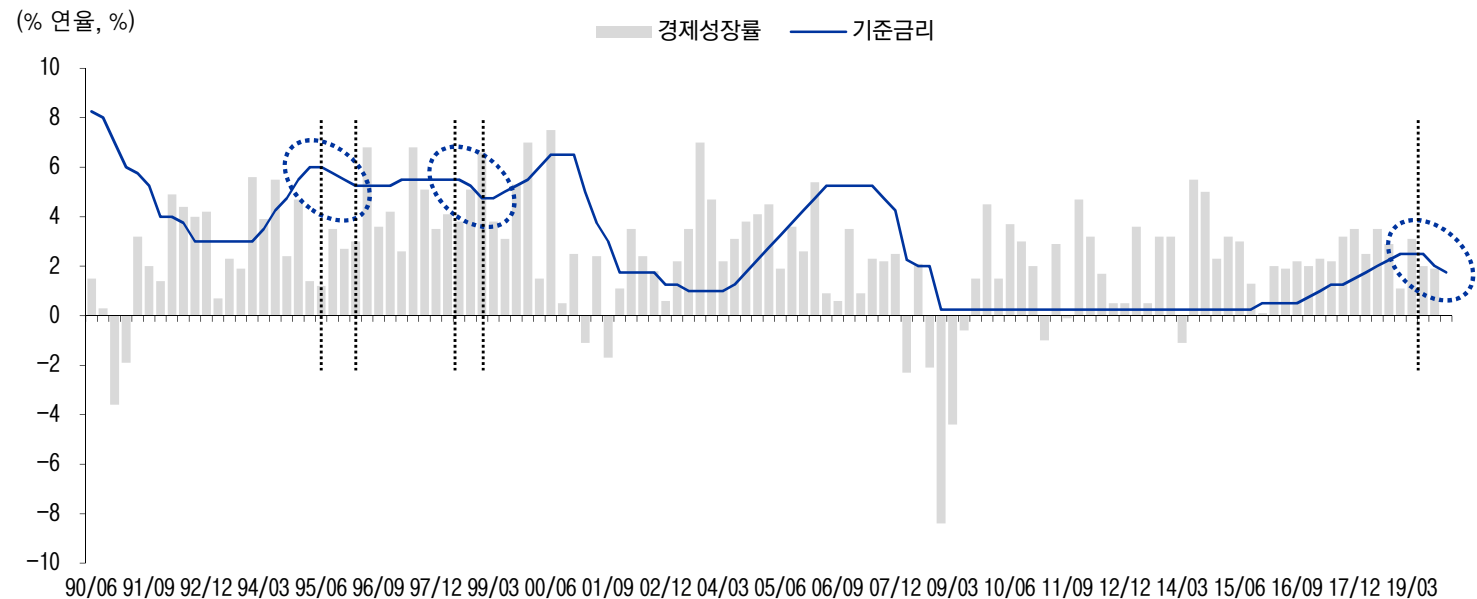
- 연준 보험성 금리 인하 마무리

- 연준 성명서를 통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
- 공교롭게도 연준의 보험성 인하는 1995년과 1998년 이뤄졌던 보험성 인하와 동일한 75bp 수준에서 마무리

- 추가적 금리인하 가능성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

- 연준의 발언은 경기가 좋아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다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것
- 결국 현 상황의 경기호조를 확인해 주고, 금리 인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비둘기파적인 성격의 재확인
- 재미있는 점은 과거 두 차례의 보험성 인하 종료 이후 미국 경기는 성장 추세를 보였다는 것

미국 경제성장률과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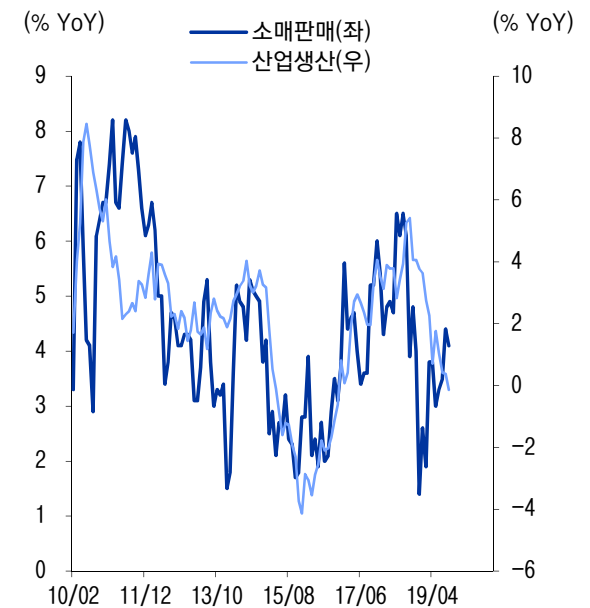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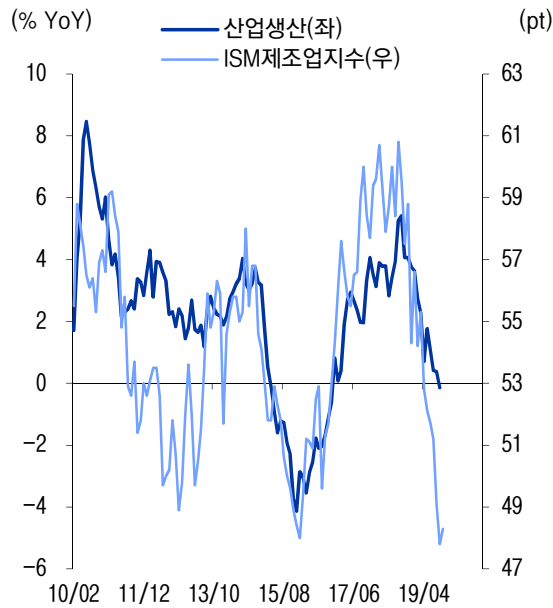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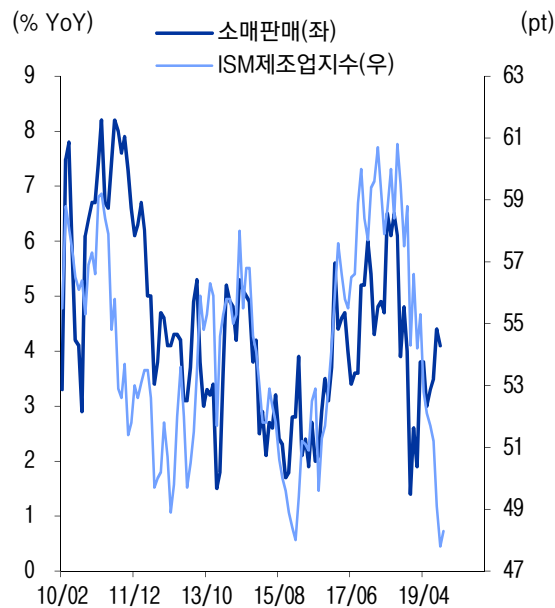


Economy – ISM제조업지수, 컨센 하회보다 반등 확인이 중요

● ISM제조업지수 반등. 추가적인 추세 확인은 필요

- 지난 주 자료에서 소매판매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심리 침체로 산업생산의 디커플링 발생 언급
- PMI지수의 상승 반전에도 불구하고 ISM제조업지수는 하락 추세를 지속
- 2019년 10월 ISM제조업 지수 48.3pt로 9월 47.8pt 대비 반등
-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 하지만 구매자 설문을 어떻게 예상 가능한지가 오히려 의문. 중요한 점은 반등이 나왔다는 것
- 11월 추가적인 반등 흐름 확인 시 산업생산에도 긍정적인 기대 형성 가능

미국 소매판매 증가가 제조업심리와 괴리 → 제조업심리 부진으로 산업생산 부진 지속 → 소비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진



Commodity – 2019 LME Week: 기대와 희망 보다는 팩트에 집중 eB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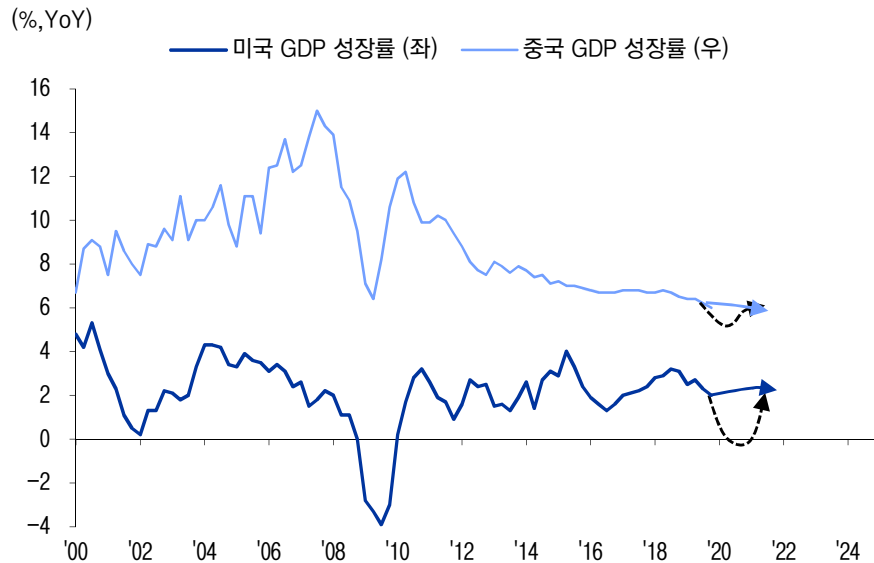
● 2019 LME Week 중론: 더딘 경기 회복, 낮아진 기대감, 여전한 불확실성

- 2019 LME Week에 참석한 패널, 참가자 모두 내년 경기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
- ① 경기 회복 국면이라 말하지만 3Q20까지만 말하는 이들이 대다수. 일부는 美 침체 시 V가 아닌, U자형으로 2021년 말 회복 예상
- ② 중국은 더 이상 재정정책 카드 남아있지 않은 상태. 2Q20부터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 회복 통해 경기 하방 리스크 억제 예상
- ③ 美中 무역합의는 갈등 이전 수준으로의 위안화 회귀, 전면적 관세 철회 없이 경기 회복 기여도 낮다는 것이 중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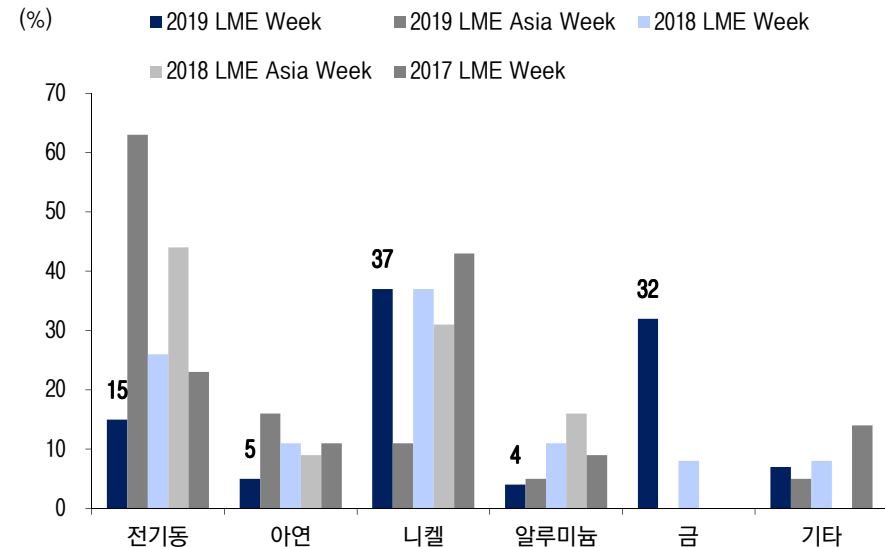
● 2020년 시장 컨센서스: 니켈 > 금 > 전기동 > 아연 > 알루미늄 > 연(납)

- 이 같은 더딘 경기 회복 + 여전한 불확실성 등 감안, 참가자들과 패널들은 산업금속 보다 귀금속 선호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당사 원자재 연간전망 통해 공개할 계획

글로벌 경기 회복 Vs. 美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공존



시장 참가자들은 2020년 니켈과 금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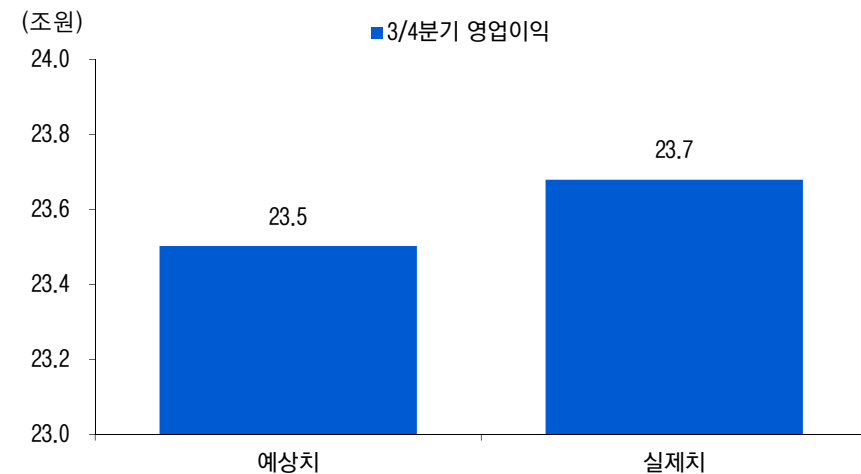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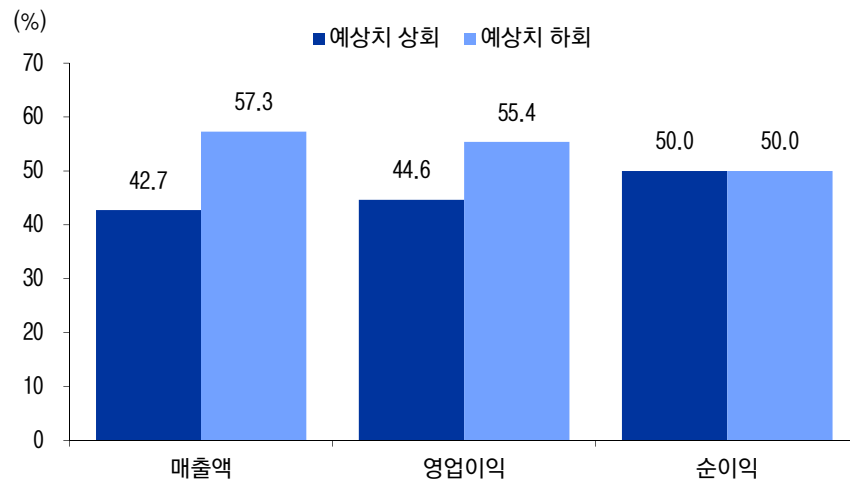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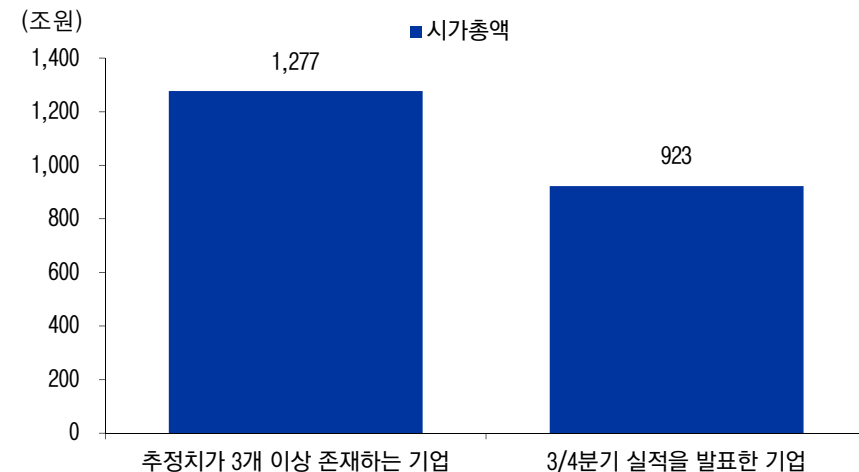
주: 우측 그림은 LME Week 현장 서베이

자료: Bloomberg, LM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Quant – 3/4분기 한국 어닝 시즌 중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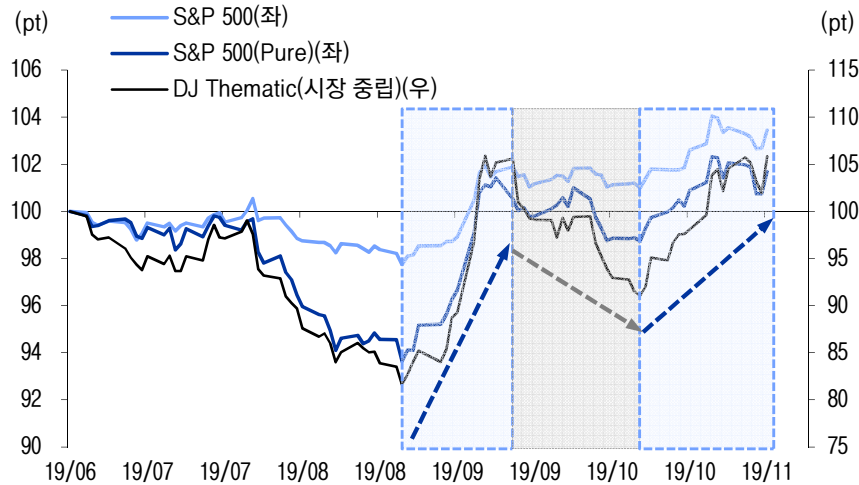
예상보다 순항하는 모습 지속

- ✓ 3/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존재하는 한국 기업의 시가총액은 1,277조원에 이르는데, 이 중 3/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시가총액은 923조원으로 전체 추정치가 존재하는 기업의 72%에 달함
- ✓ 기업의 개수로만 본다면 약 110여 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 상태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았지만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았음
- ✓ 다만 대형주가 긍정적인 실적을 이어가면서, 3/4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치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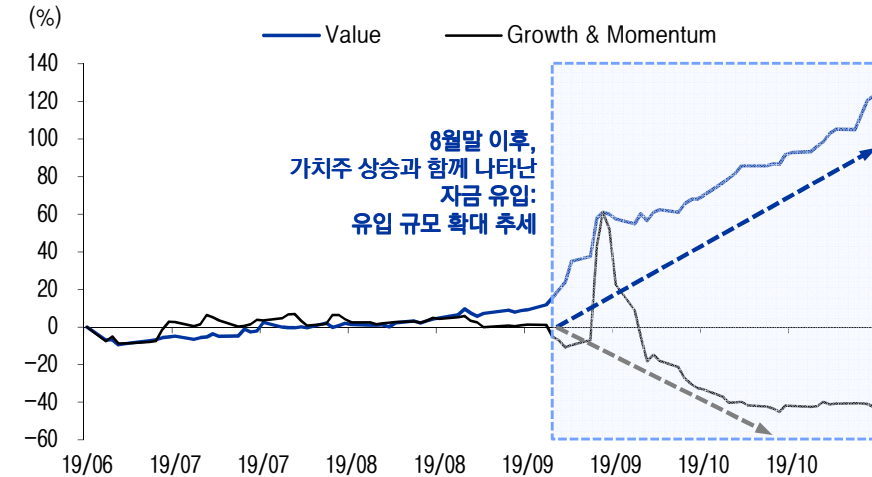


Quant - 미 · 중 무역협상으로 가치주 재차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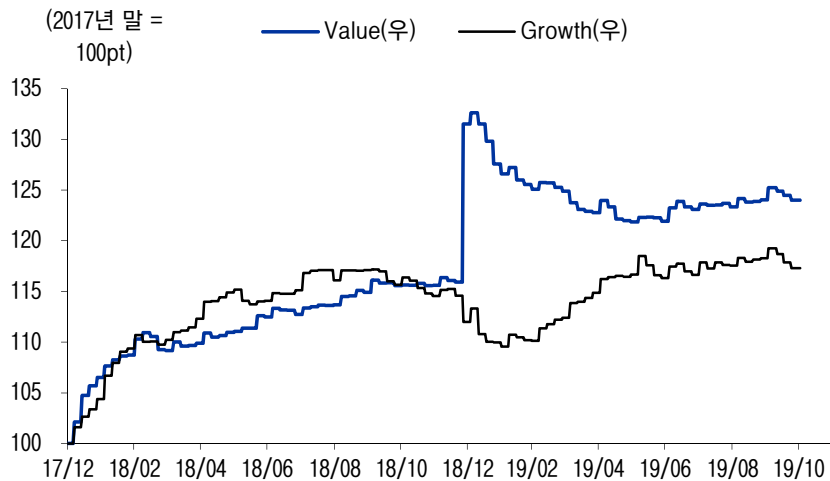
미국 Value / Growth(혹은 Momentum) 상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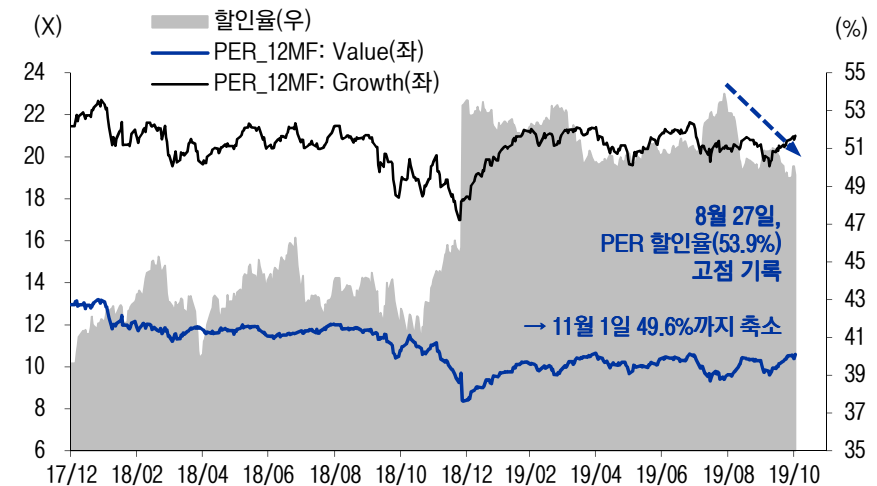
미국 ETF 누적 펀드 플로우(2019년 6월 말 NAV 대비)



S&P 500 Pure Value, Growth 12M Fwd EPS



S&P 500 Pure Value의 12MF PER 할인율(Growth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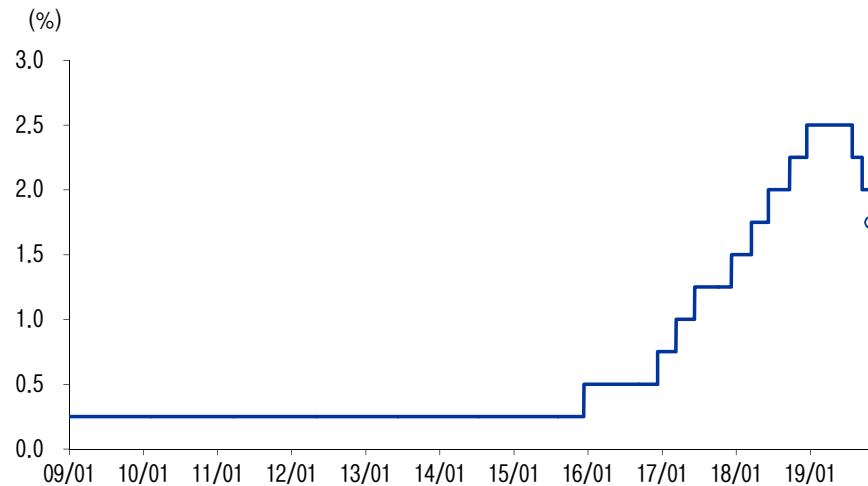


● 10월 FOMC 결정 내용

- ① 기준금리 25bp인하(1.75% ~ 2.00% → 1.50% ~ 1.75%), 에스더 조지 총재와 에릭 로젠그렌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 ② IOER, RRP도 25bp씩 인하(IOER: 1.8% → 1.55%, RRP: 1.7% → 1.45%)
- ③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겠다(will act as appropriate to sustain the expansion)’는 문구 삭제.
대신 ‘입수되는 정보가 경제전망에 미칠 영향을 지속해서 모니터하면서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적절한 경로를 평가할 것 (continue to monitor the implications of incoming information for the economic outlook as it assesses the appropriate path of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문구 추가
→ 기존 문구에 대해 시장은 경제지표 악화되면 금리 인하할 것으로 해석. 이 문구가 삭제되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받아들임.
다만, 추가된 문구도 현재 경제가 적절히 성장하고 있지만, 향후 경기 둔화 될 경우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

● 12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상승. 하지만, 경기 하방 리스크가 심화 될 경우, 금리 인하 가능성 배제 불가

미국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내재확률(2019년 12월)



● 10월 BOJ 결정 내용

– 장단기금리 조작(일드 커브 컨트롤; YCC) 유지

① 단기금리: -0.1% 동결

② 장기금리: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0%수준 유지연간 80조엔 규모 장기 국채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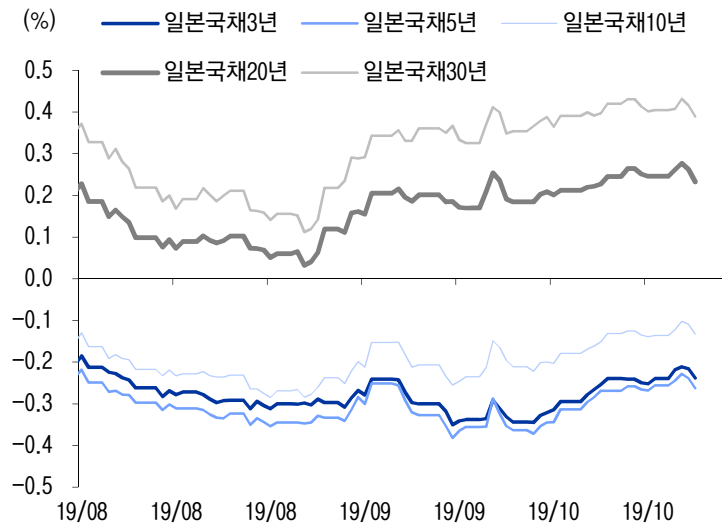
– 포워드 가이드언스 변경: BOJ의 정책 여력 남아있다는 것 시사. 이전에 없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 둔 것으로 판단

● 기존 포워드 가이드언스: 적어도 2020년 봄까지 현재의 지극히 낮은 장단기금리 수준으로 추이하는 것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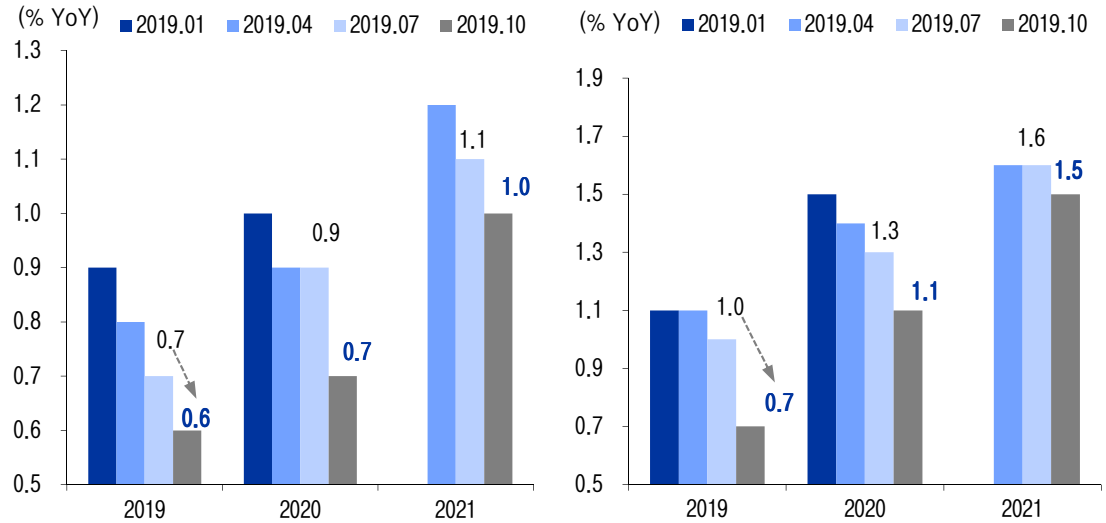
● 변경된 포워드 가이드언스: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모멘텀 손상 우려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기간 동안 현재의 장단기 금리 수준, 또는 이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추인하는 것 상정

● 10월 수정경제전망 발표: 경제성장률의 경우 7월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한 0.6%. 물가상승률의 경우, 0.3%p 하향 조정한 0.7%

일본 국채 장단기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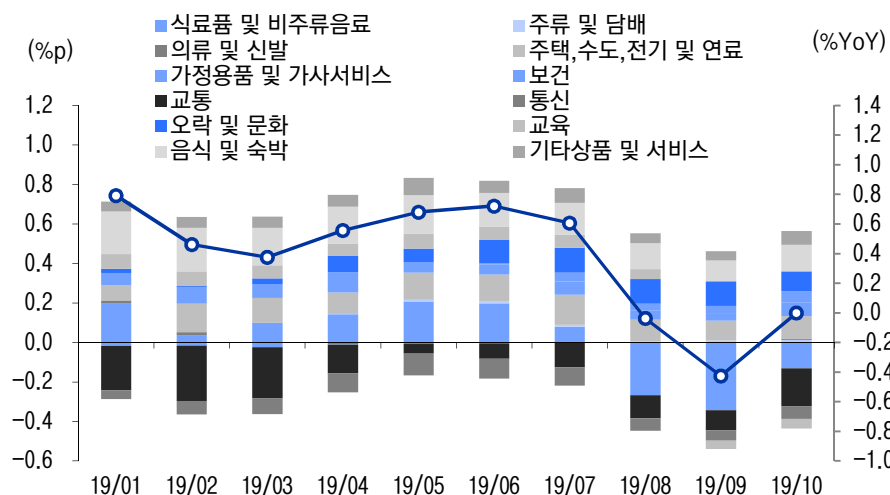
10월 수정경제전망: 2019년도 경제 성장률(좌)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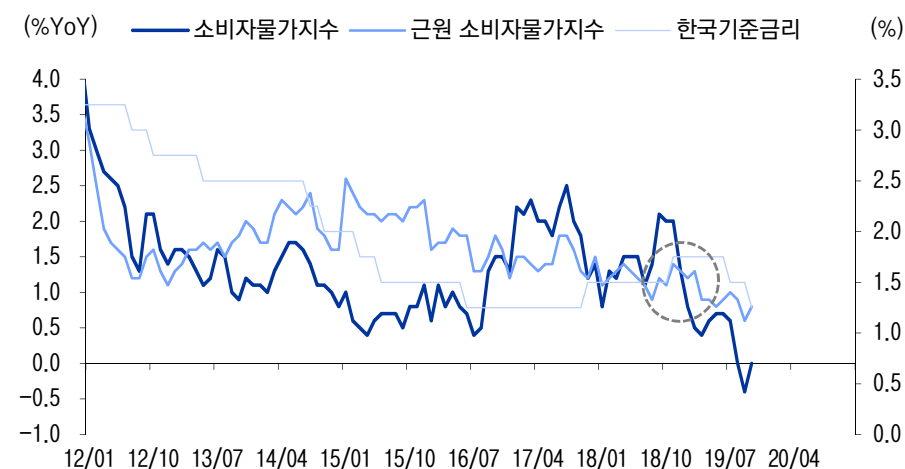
Issue – 한국의 물가상승률 하락 요인: 수요 vs 공급

- 10월 29, KDI의 「최근 물가 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서 최근의 낮은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도 있겠지만, 수요 측 요인이 더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판단
- 또한 KDI는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물가 안정이라는 고유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금융안정도 중요하지만 물가 안정에 주력하여 통화정책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
-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상기 KDI 리포트 내용에 대해 반박
 윤면식 부총재: 물가 안정에 중점을 뒀야 한다는 것은 다소 이른 상황. KDI 주장이 현재 상황에서 이해되는 바는 없지 않지만 통화 정책을 그렇게만 운영할 수 없음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 최근 저물가 주요 원인은 1) 농산물의 기저효과 2)국제유가 하락 3) 정책적 요인. 모든 제품의 서비스·제품 상승률이 낮다고 해서 수요 부진이라 하기 어려움. 글로벌 가치사슬(GVC) 확산, 생산기지 해외이전, 정책 등 공급 측에서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다양한 만큼, 지금의 저물가를 수요 부진으로 몰고 가는 건 어폐가 있음

2019년도 물가상승률 추이 및 지출 목절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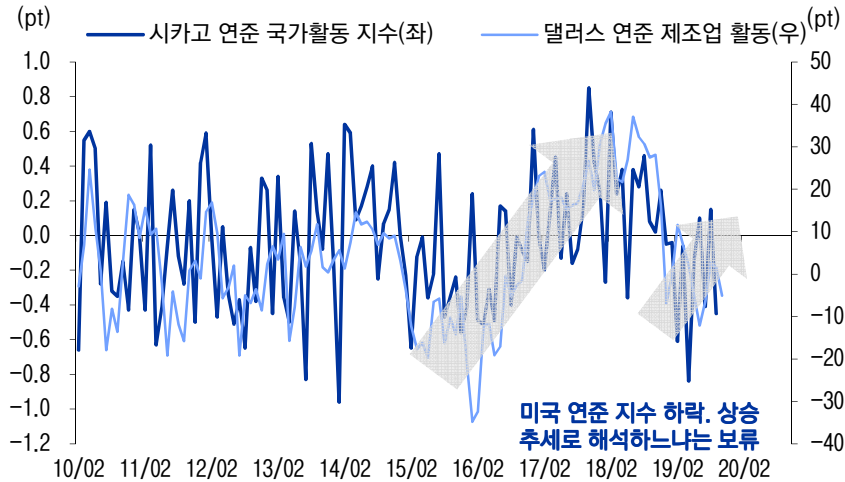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지수 하락 구간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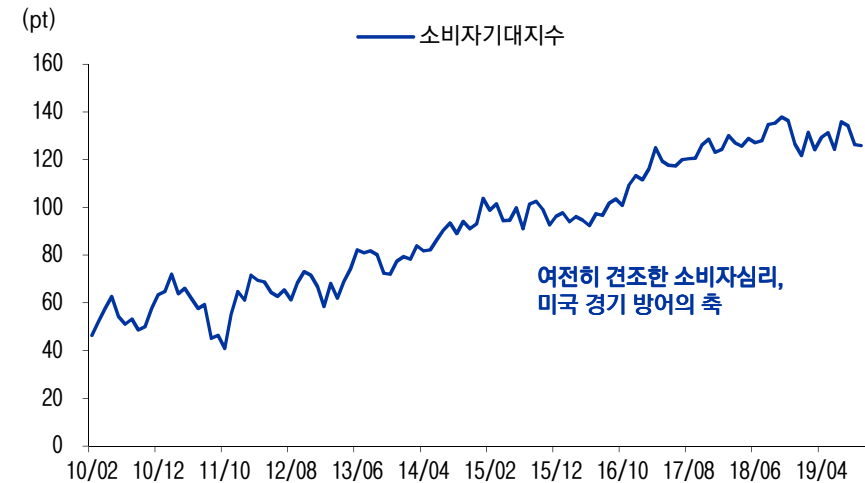


주요 경제지표 해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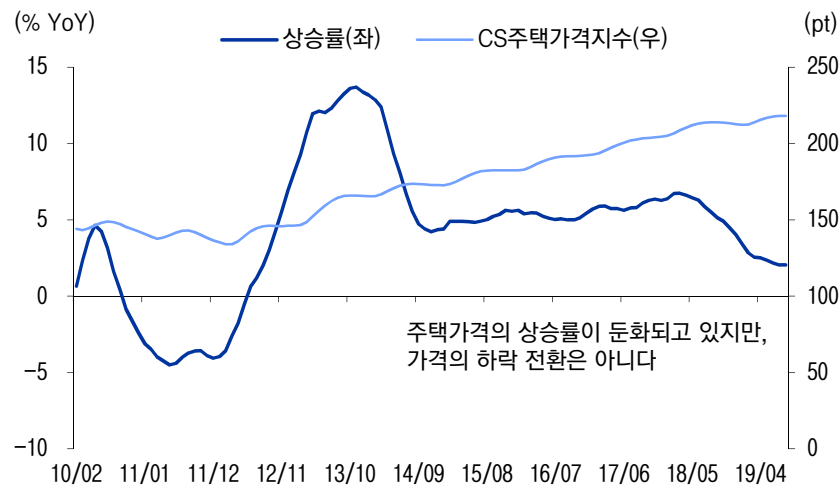
미국 지역 연준 활동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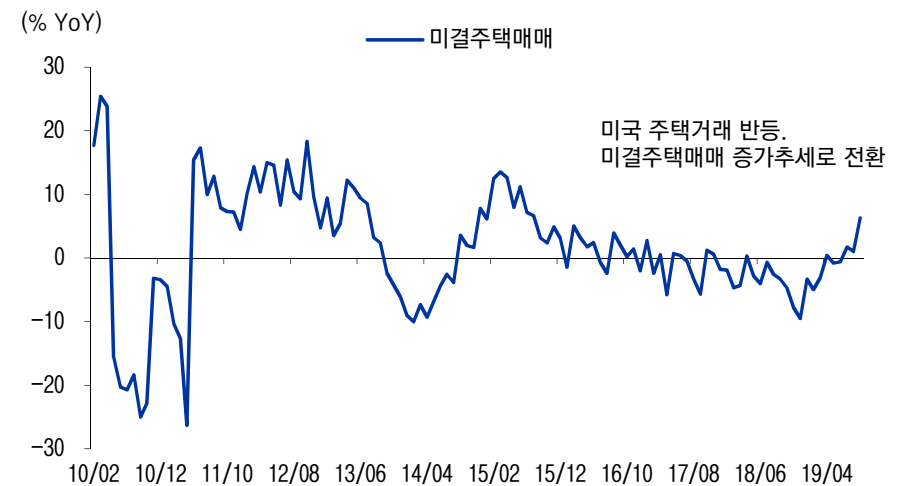
미국 소비자기대지수



미국 주택가격 지수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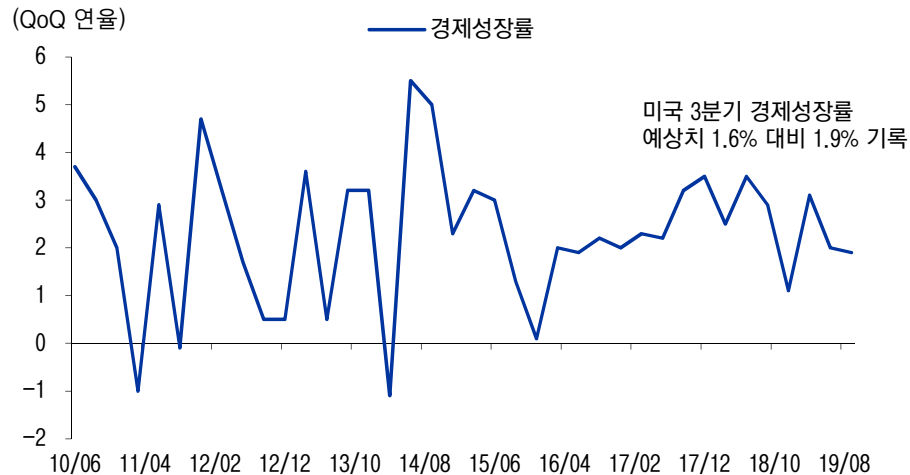


미국 미결주택매매



주요 경제지표 해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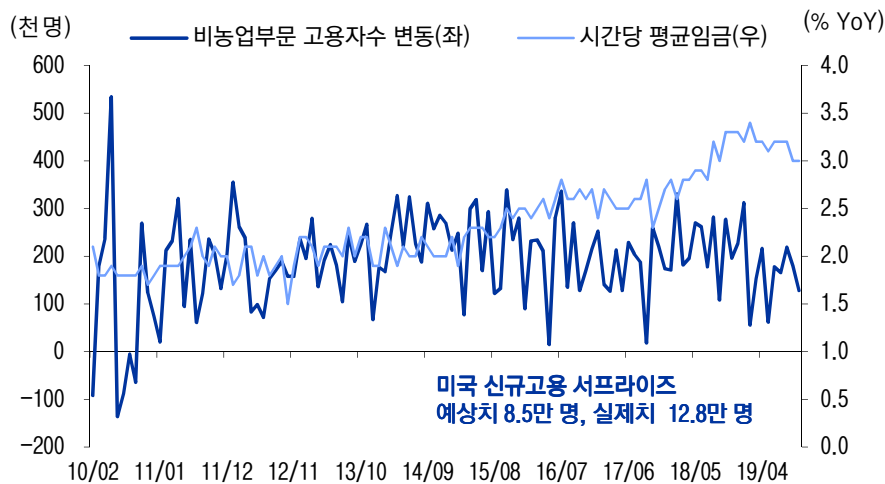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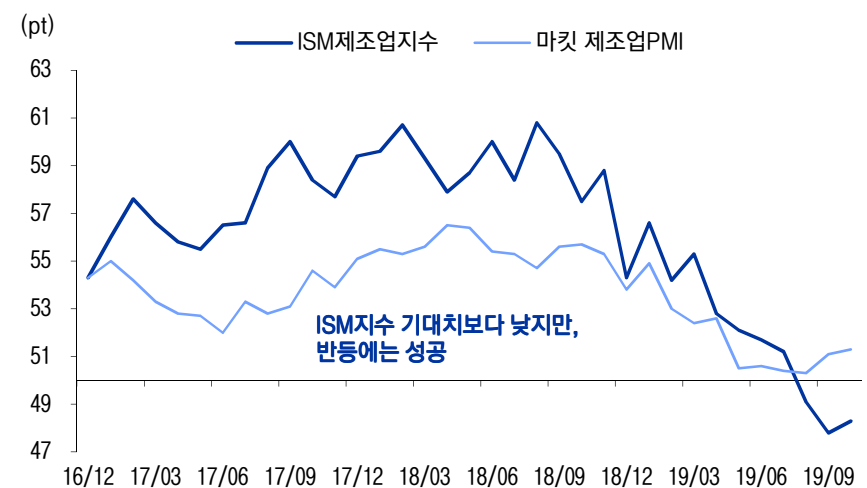
미국 기준금리 인하



미국 고용지표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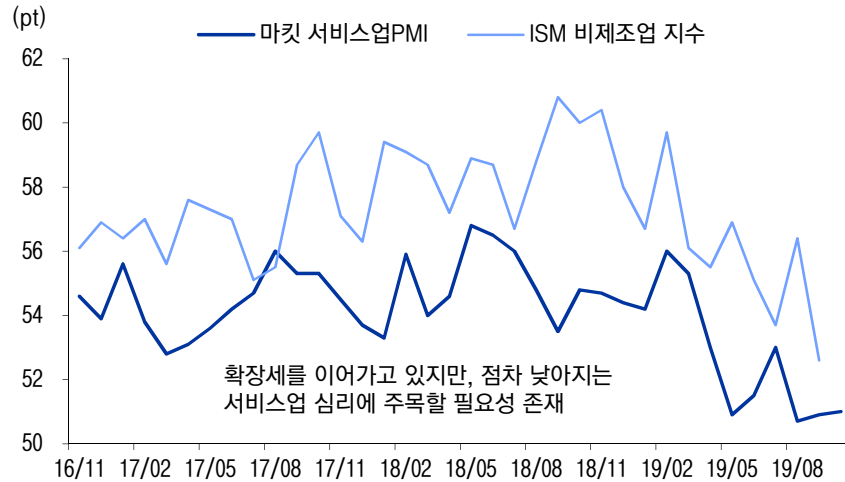


미국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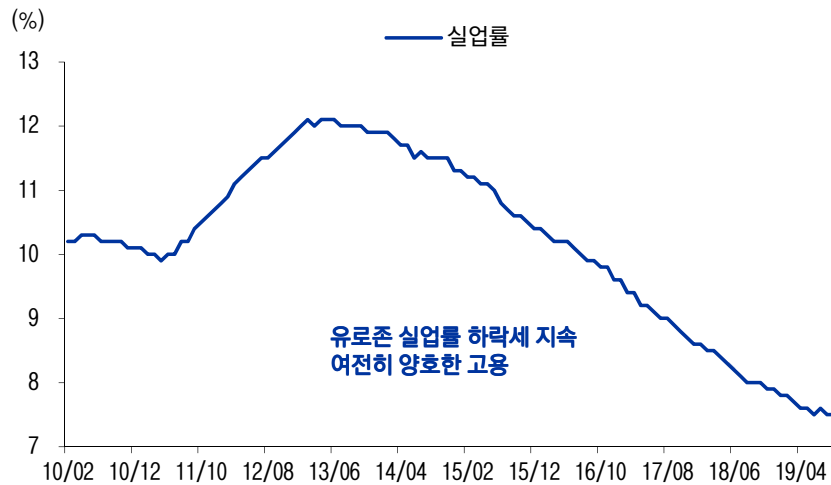


주요 경제지표 해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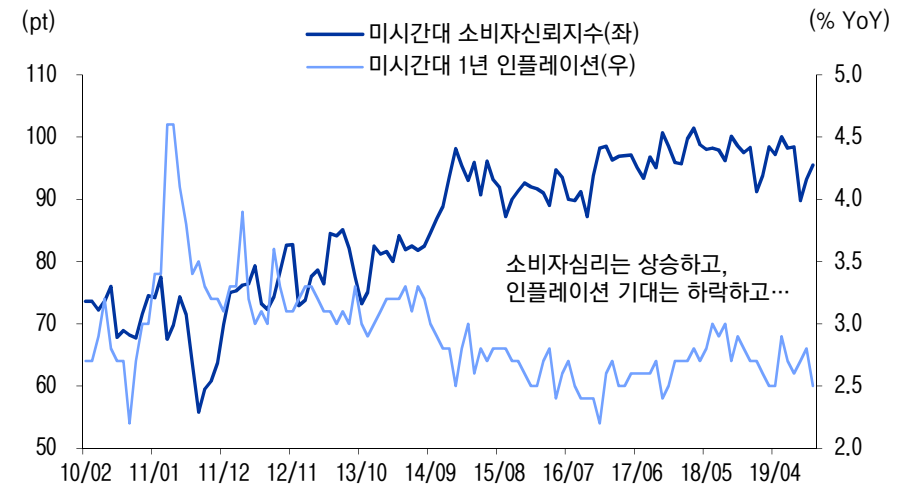
미국 서비스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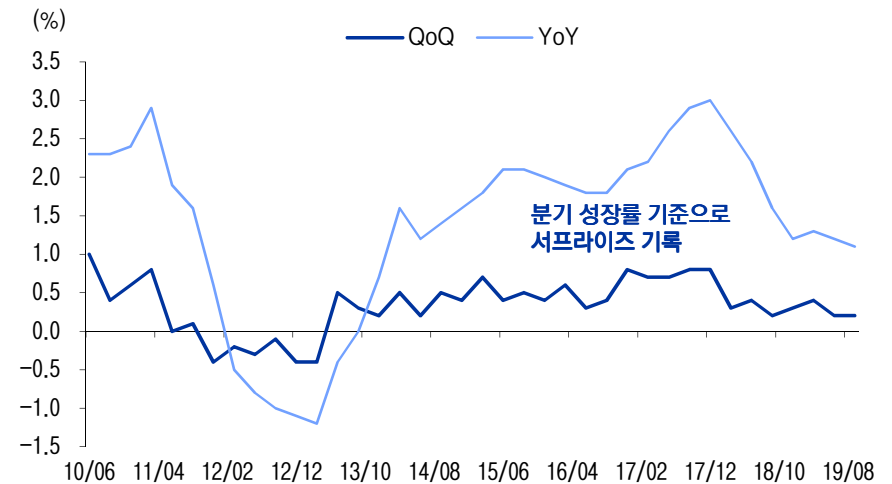
유로존 실업률



미국 소비자신뢰지수와 인플레이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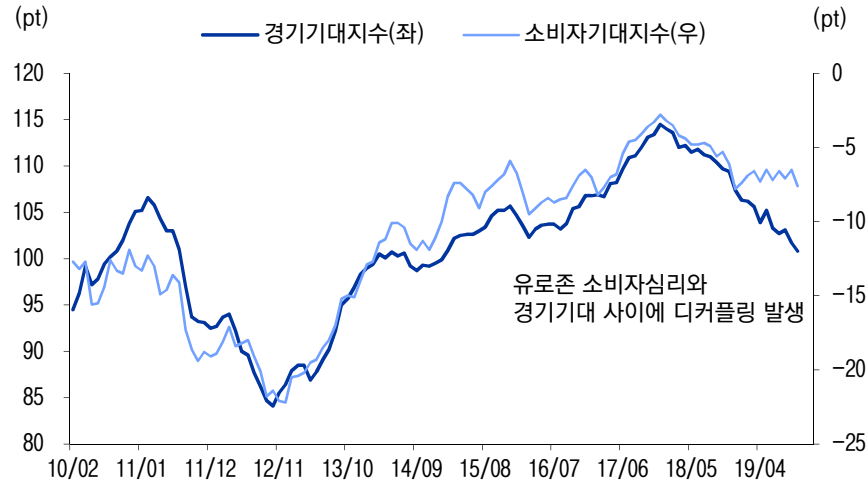


유로존 3분기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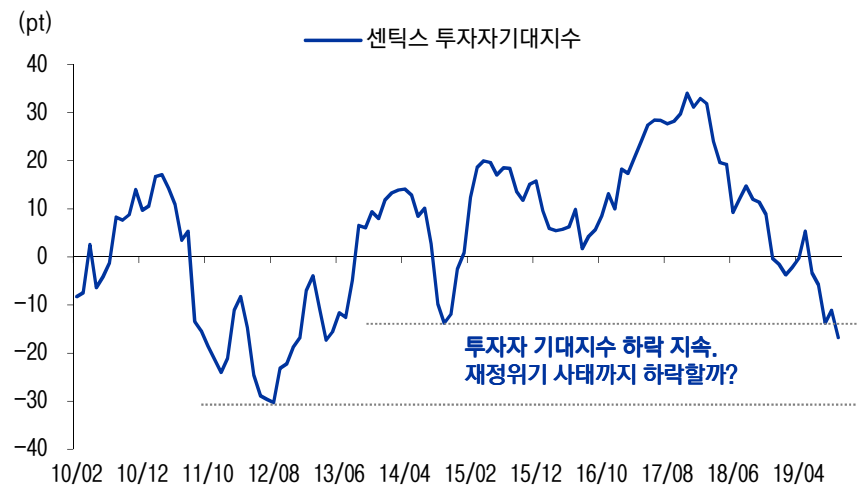


주요 경제지표 해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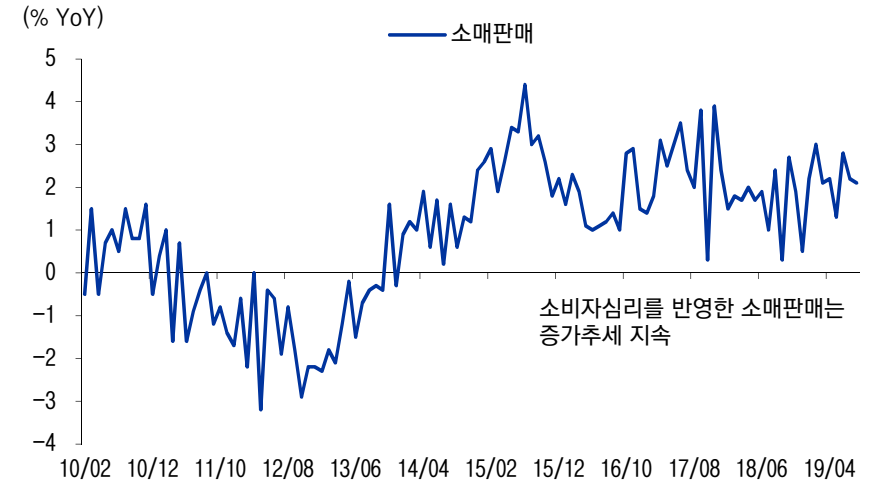
유로존 경기기대지수와 소비자기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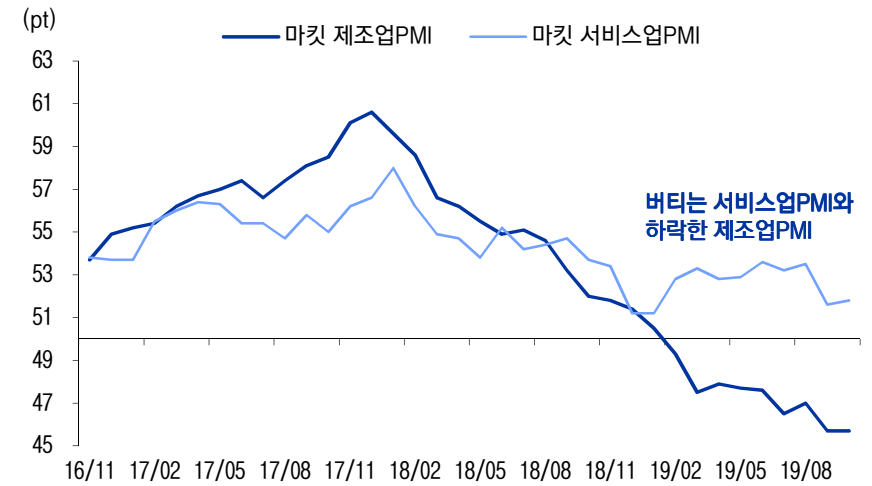
유로존 투자자 기대지수



유로존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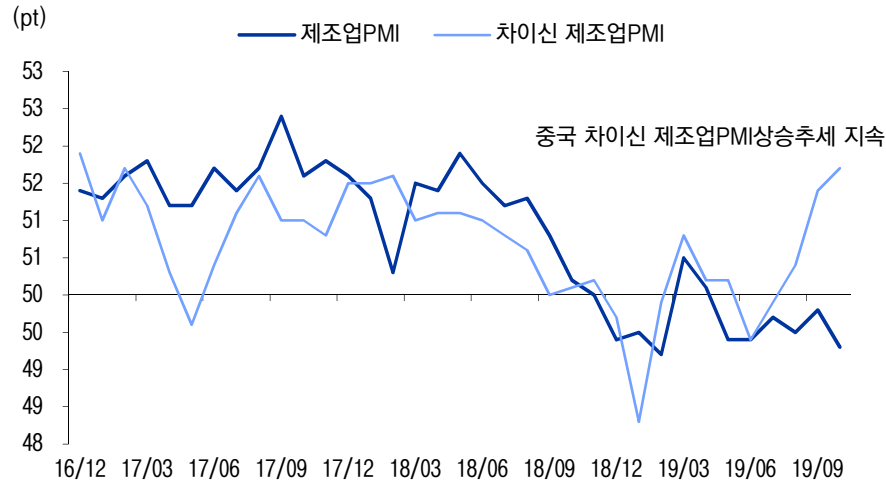


유로존 마켓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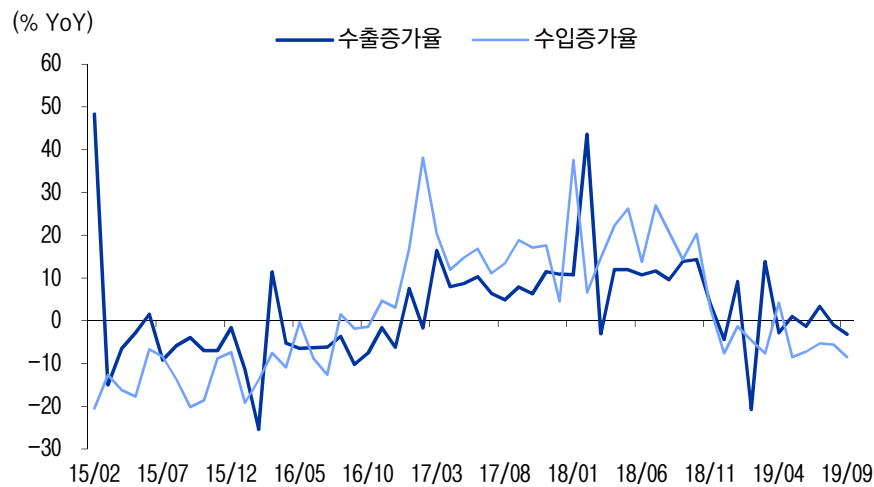


주요 경제지표 해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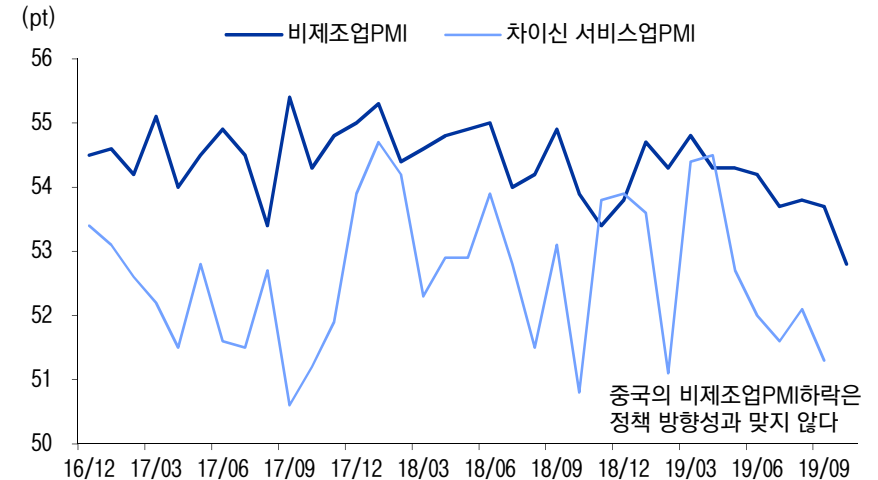
중국 제조업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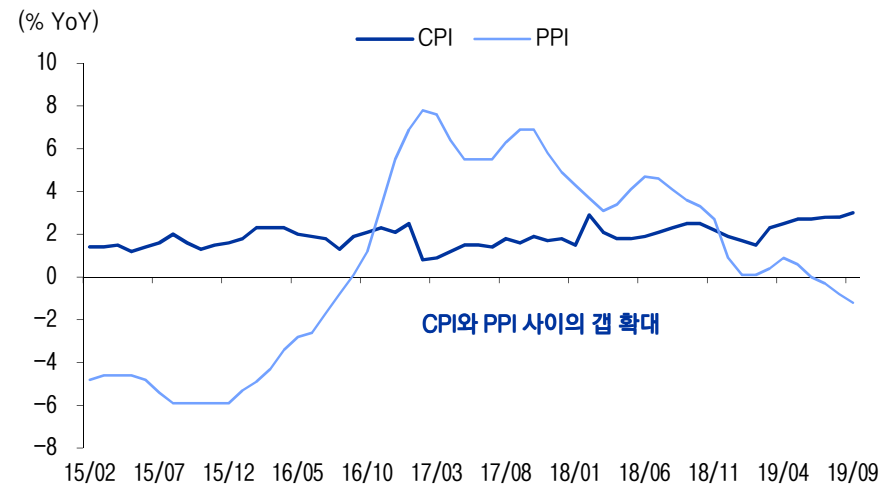
중국 수출입 증가율



중국 서비스업PMI



중국 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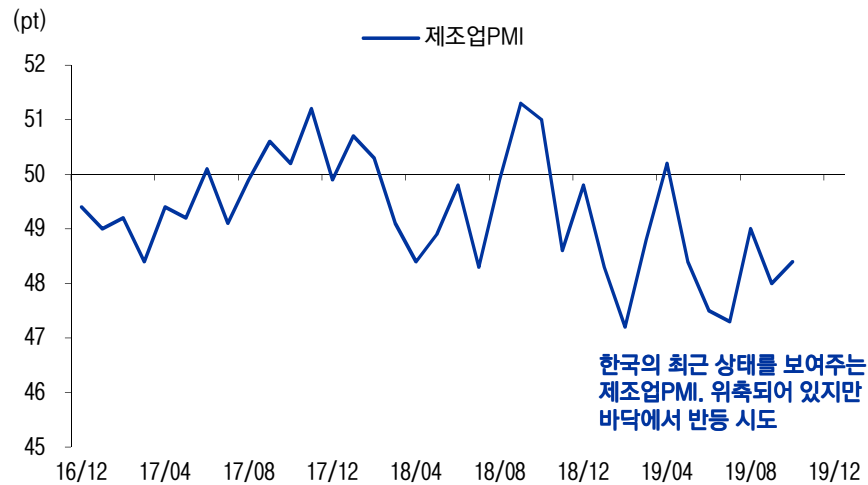


주요 경제지표 해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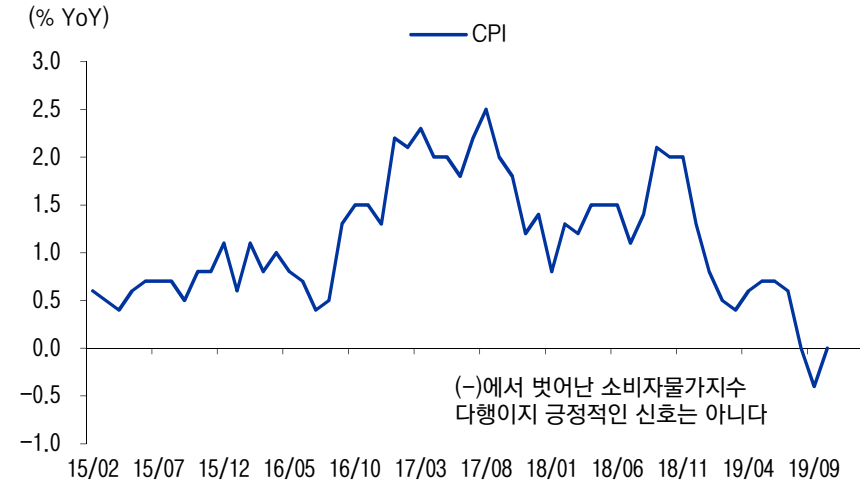
한국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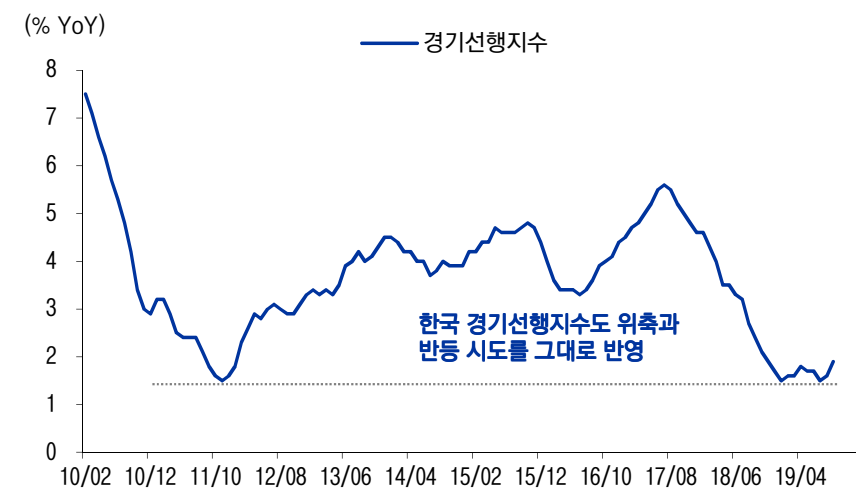
한국 제조업PMI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세 진정



한국 경기선행지수



Speeches and Statement Schedule

Date	국가	발표자	성향 (9월 FOMC 기준)	내용
2019.11.04	유럽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	- 베를린 "Publishers' Night" 행사에서 연설
2019.11.04	미국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Centrist	- NYU Stern's Center에서 세계 경제와 비즈니스를 주제로 연설
2019.11.05	미국	로버트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	Centrist	- 달라스에서 연설
2019.11.05	미국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Dove	- 미니애폴리스 moderated Q&A 행사 참석
2019.11.06	유럽	루이스 데 쿼도스 ECB 부총재	-	- 프랑크푸르트에서 연설
2019.11.06	미국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Dovish	- 뉴욕 의회에서 연설
2019.11.06	미국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Centrist	- 뉴욕 월스트리트 행사에 참석
2019.11.06	미국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Hawkish	- "Rethinking Workforce Investments"를 주제로 연설
2019.11.07	미국	로버트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	Centrist	- 달라스에서 연설
2019.11.07	미국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Centrist	- 뉴욕에서 통화정책에 대해 발언
2019.11.08	미국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Centrist	- 기후변화의 경제학을 주제로 한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연설

주요 인물의 한 마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고려하려면 정말로 상당한 물가 상승이 지속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음”

“한 해 동안 우리는 더 완화적인 기조로 움직였고, 매우 상당한 정책 조정을 이미 했음”

“시간을 두고 정책 효과를 느껴봐야 함”

“현 정책 기조가 다소 완화적임”
(2019.10.30)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EU 27개국이 공식적으로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채택했음”

“이는 마지막 연장이 될지도 모름 ”

(영국 측에)

“부디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달라”

“나 역시 이곳에서 나의 임무가 끝나가는 만큼 작별을 고하고 싶음”

(2019.10.29)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칠레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취소한 이후 중국과 미국이 전체 합의의 약 60%를 차지하는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할 새로운 장소를 고르고 있음”

“새로운 장소가 곧 발표될 것”
(2019.10.31)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음”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할 장소에 대해서는)
“아이오와가 될 수도 있음”
(2019.11.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물가 모멘텀이 소실될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주저하지 않고 추가 완화 조치를 취할 것”

(포워드 가이드라인 수정에 대해)

“완화 방향을 의식한 일본은행의 입장을 명확히 했음”

“일본은 유럽에 비해 단기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좀 더 있음”

(2019.10.31)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신중호, 최광혁, 염동찬, 정다운, 최진영, 우혜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